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두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두투자신탁(카디안 코리아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9억 원

-모투자신탁 145억 원

**펀드유형** 주식형, 모자형, 종류형  
- 모두투자신탁 편입비: 90% 이상  
- 모두투자신탁 주식편입비: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14년 11월 19일)

- 클래스 C : 2014년 11월 19일
- 클래스 C-E : 2015년 04월 20일
- 클래스 S-P2 : 2014년 12월 19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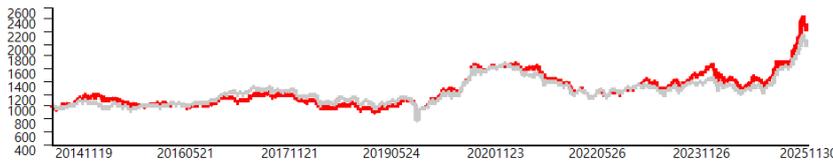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6.00%	30.50%	50.65%	70.76%	64.96%	78.87%	67.90%	122.91%
클래스 C	-6.13%	30.06%	49.58%	68.34%	60.12%	71.01%	55.70%	88.45%
클래스 C-E	-6.08%	30.20%	49.92%	69.09%	61.62%	73.43%	59.42%	74.60%
클래스 S-P2	-6.08%	30.23%	50.01%	69.33%	62.09%	74.21%	60.71%	112.49%
벤치마크	-4.40%	23.24%	45.55%	59.88%	54.88%	58.81%	51.53%	99.62%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출처: AITAS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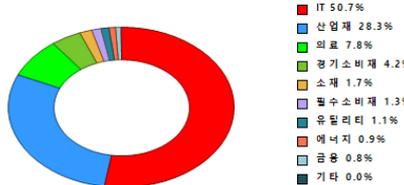
— 운용펀드기준가 — BM기준가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11월말, 모두투자신탁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11월말, 모두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18.7	엘앤에프	전기.전자	2.6
SK하이닉스	전기.전자	13.2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전기.전자	2.5
한국항공우주	운송장비.부품	3.8	이수페타시스	전기.전자	2.5
두산에너지빌리티	기계.장비	3.0	한화에너지스페이스	운송장비.부품	2.1
LG에너지솔루션	전기.전자	2.9	LS ELECTRIC	전기.전자	2.0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보수 및 수수료

##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 : 총 연 1.535% (판매 0.95%)
  - 클래스 C-E : 총 연 1.055% (판매 0.47%)
  - 클래스 S-P2 : 총 연 0.935% (판매 0.35%)
- (공통사항)  
운용 0.54%, 신탁 0.03%, 사무관리0.015%

## 선취수수료

클래스 C, C-E, S-P2 없음

## 환매수수료

없음

##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1월 국내 증시는 시장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KOSPI는 전월 대비 4.4% 하락한 3,926.59pt로 마감한 반면, KOSDAQ은 1.36% 상승한 912.67pt를 기록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방정부 섯다운 리스크와 이에 따른 단기 유동성 경색 우려, 그리고 연준(Fed)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AI 산업에 대한 거품론까지 제기되며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다만 월 중반 이후, 국내 반도체 업종의 2026년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과 미국 빅테크의 견조한 실적, AI 생태계에 대한 낙관론 재점화, 국내 소비자심리지수 개선 등에 힘입어 지수는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연초 이후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조선, 기계 업종이 조정을 받은 반면 섬유 의복, 은행, 철강, 음식료, 자동차부품 등 경기 방어 및 가치주 성격의 업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환율 및 원자재 시장을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매도세 등의 영향으로 원화 약세 흐름을 보이며 1,464.8원에 마감하였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 대비 하락한 배럴당 58.5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약 14.1조 원을 대거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으나, 기관과 개인투자자가 각각 약 6.3조 원, 8.8조 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소화했습니다.

9~10월의 역대급 랠리 이후 11월에는 전반적인 조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기계, 조선에 대한 비중을 유지 하되, 미국 AI 버블에 대한 우려로 조정세가 커짐에 따라 반도체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줄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섯터들에 대한 비중을 높여 대응했습니다. 연말 연초 라이선스 아웃과 학회 기대감이 형성될 가능성에 대비해 의약 업종과 과거 대비 레벨이 높아진 환율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내수주에 대한 비중을 올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의약 업종 외에 자동차 업종과 운수창고 업종의 시장 비중 대비 underweight 효과가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던 반면, 조선, 기계 전자부품 업종은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분할 상장으로 인해 거래정지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장 비중 대비 underweight 효과, 구글의 TPU 성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기 실적 가시성이 높아진 이수페타시스, 연중 추가적인 라이선스 아웃에 성공하면서 파이프라인 가치가 높아진 에이비에바이오가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반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와 시장 기대치 대비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심텍,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연내 추가 수주 기대감이 약화된 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기대감으로 향후 실적 가시성이 우려된 현대로템과 분할 상장 후 상승세를 보였던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시장 비중 대비 underweight 효과는 펀드 성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2월 국내 주식시장은 전월 대비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속에서, 2026년 연초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며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첫째, AI 섯터의 반등이 예상됩니다. 최근 제기된 AI 과잉 투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현금 흐름을 보유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기조는 견고합니다. 이는 국가 및 기업 간 AI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섯택이며, 이에 따라 반도체와 전력기기 등 AI 생태계 핵심 밸류체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정부 정책 모멘텀이 하방을 지지할 것입니다. 상법 개정 논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환원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드라이브, 그리고 2026년 조성 예정인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신성장 산업 유동성 공급 기대감은 국내 증시의 수급을 개선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외 불확실성 완화입니다. 주요 수출 기업의 리스크였던 관세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며 안도감이 형성되고 있고, 연준(Fed)의 통화정책이 점차 완화적 기조로 선화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경기 회복과 국내 기업 이익 개선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11월에는 전반적인 지수의 조정으로 과열세를 진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12월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12월은 2026년을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여러 요인들을 다시 점검해보자면,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지수의 상승 추세를 예상합니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와 수준에 대한 논란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여전히 2026년 중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논란이 있었던 AI 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다시 근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에서 촉발되어 여러 산업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AI에 대한 투자는 서로가 경제적인 논리로 투자를 멈출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주도주가 변화할 가능성에 따라 종목별 성과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엔비디아의 AI 경쟁력이 약화되는 점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AI에 대한 우려는 단기적인 조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KOSPI 이익 전망치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반도체 대형주들의 실적 추정치 상향은 아직 피크아웃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6년은 2025년 대비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세로 인한 과열 부담도 더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일수록 실적 성장성과 가시성이 높은 종목으로의 집중화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기존 포트폴리오의 주력 섯터들에 대한 비중을 유지하되, 한 단계 높아진 원화 환율의 레벨을 감안해 의약 업종과 내수주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감으로써 기존 주도주를 이어 알파 소스를 확보해 수익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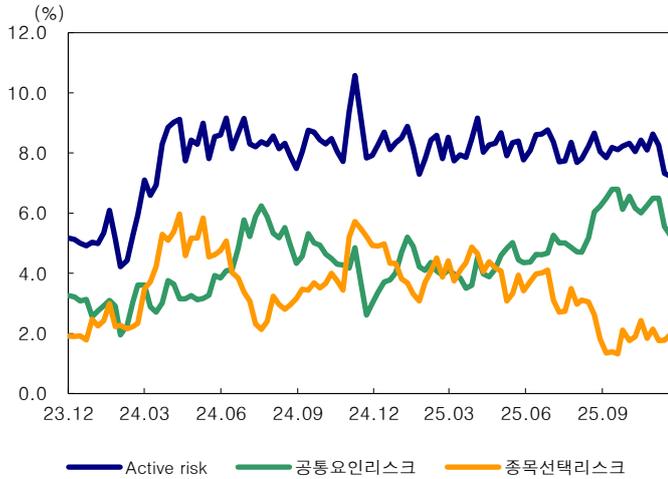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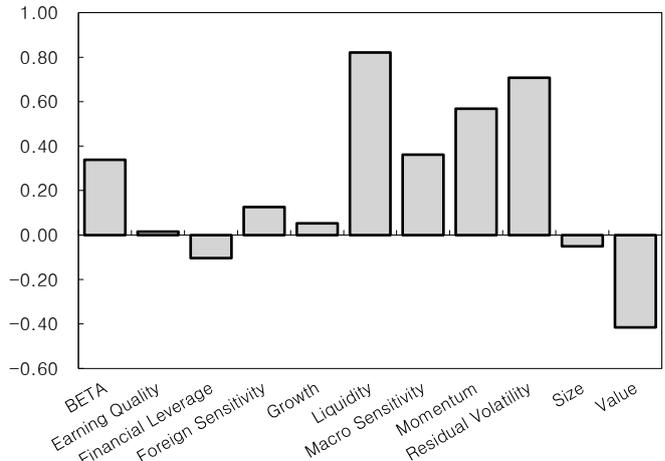
	2025-11-28	2025-10-31
Active Risk <sup>1</sup>	7.23%	8.09%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sup>2</sup>	5.27%	6.26%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4.33%	6.07%
- 섹터 리스크 기여도	0.94%	0.19%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sup>3</sup>	1.96%	1.84%
베타	1.15	1.23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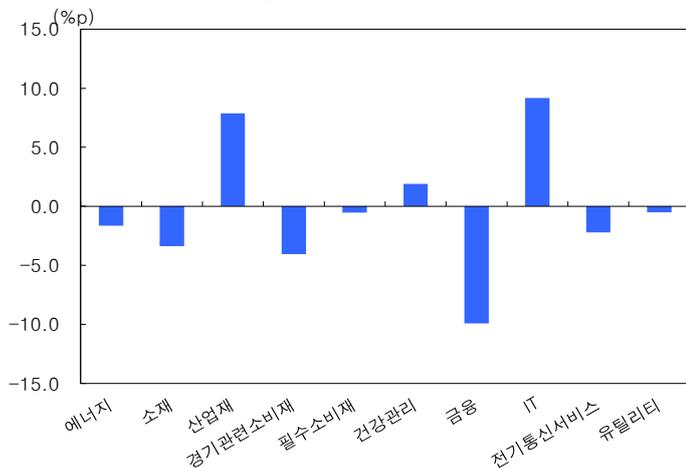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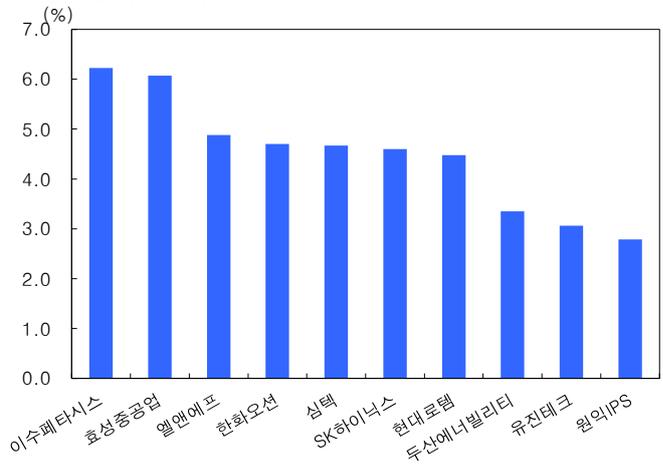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11월말 현재, 코리아리더스증권모(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7.23%로 전월대비 감소하였습니다.
- ▶ 종목수는 전월대비 3개 종목 증가하여, 56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전기통신서비스', '금융'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IT', '경기관련소비재'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10월말 기준으로는 '엘앤에프'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현대로템'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증가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Liquidity'가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유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판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중형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